

# 大河기획/한라산 학술대탐사(195회)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29)괘평이오름·넙거리오름  
무관심 속 신음하는 생태계 寶庫

입력 : 2004. 05.14. 00:00:00



인간의 무관심과 관리 소홀로 생태계 보고인 오름이 신음하는 현장은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다. 괘평이 오름 일대도 예외는 아니다. 인공 구조물이 오름 경관을 망치고 있지만 당국의 관리·보호 손길은 요원한 실정이다. 세개의 오름이 연속으로 이어진 괘평이와 넙거리오름에 대한 탐사는 지난 4월 10일 이뤄졌다.

## △괘평이오름

괘평이(孤片岳, 竝岳)는 세개의 독립적 오름으로 구성된 특이한 경우다. 서쪽의 셋괘평이, 가운데 셋괘평이, 주봉격인 괘평이가 동쪽에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다. 이곳은 제주 동북부의 최대·최장의 하천인 천미천의 지류다. 괘평이와 넙거리오름 사이를 흐르는 천미천 상류의 물이 티없이 맑다.

셋괘평이오름(표고 774m)은 나지막한 굽부리를 거느렸다. 마치 자그만 사발 같은 형태로 우묵하다. 특이한 것은 굽부리 안에 크고 작은 현무암으로 겹담 형태의 돌담이 둘러쳐져 있다는 것이다. 석축의 폭은 70~80cm, 높이는 대략 50cm 정도다. 돌담은 완전한 원형을 이루지 못하고 남쪽 부분으로 트였다. 돌담의 푸른 돌이끼가 세월의 무게를 말해준다.

이곳의 돌담은 조선시대부터 운영돼온 산마장이나 경작했던 흔적과 연관지어 유추해 볼 수 있다. 가운데 위치한 셋괘평이(표고 757m)는 굽부리가 셋괘평이에 비해 비교적 오목하고 깊다. 이곳은 울창한 수림지대지만 큰 나무는 잘 보이지 않는다. 적당한 크기의 나무들이 오름 사면에 뺨뺨히 들어차 있다. 크기들이 엇비슷한 것으로 봐서 옛날 목마장 지대였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 일대는 한라산 식생구조상 낙엽수림지대와 상록수림지대의 경계를 이루는 지점이다.

지난 주말(4월 3일)에 탐사한 물오름도 그렇지만 괘평이오름(표고 792m) 정상부도 흉물스런 시설물이 널려 있어 경관을 망치고 있다.

정상부에는 '산림보호'라 쓰여진 철구조물 간판이 태풍 매미 당시 떨어져 나가 흉물스런 모습을 하고 있다. 나머지 철구조물도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버티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철거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산림보호 간판이 오히려 산림과 경관을 망치는 흉물로 전

락했는데도 당국은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

괘평이오름 정상에서는 횡렬로 이어져 있는 오름군을 볼 수 있다. 건월악 절물오름 민오름 지그리오름 바농오름, 멀리 묘산봉 성산일출봉까지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다. 한라산 정상 화구를 중심으로 한 방사상의 화산구조선이 뚜렷이 잡힌다. 괘평이오름과의 사이는 마치 광활한 밀림지대를 연상시킨다. 탁 트인 조망이 압권이다.

동북 사면은 하얀노루귀와 복수초가 자지러질 듯 피었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표고자목을 물에 담그기 위해 인공적으로 조성한 연못이다. 연못은 대략 3m X 10m 크기다. 현무암으로 주위를 둘러싸고 물이 넘쳐날 정도로 가득하다.

### △넙거리오름

넙거리 오름은 이름에서 연상시키듯 사면에서부터 정상부에 이르기까지 넓다. 분화구도 완만한 지세다. 표고 810m로 동쪽을 주봉으로 하여 동서로 길게 누운 형태, 완만한 사면은 온통 조릿대로 가득하다. 말굽형 분화구가 남동쪽으로 나 있는 형국이지만 무성한 나무가 시야를 가려 전체를 한눈에 조망하기가 쉽지 않다.

넙거리 오름 정상부 사면에 조릿대가 무성한 무덤이 자리한 것이 눈에 띈다. 새삼스레 무덤에 눈길이 쏠린 것은 이날 탐사에서 유일하게 목격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보편적으로 오름 사면이나 정상부에서는 무덤이 자리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날 앞서 오른 괘평이세 오름에서는 1기의 무덤도 찾아볼 수 없었다.

왜 그럴까. 무덤은 보통 골이 둔덕지고 말굽형 분화구에서 생긴다고 신영대 탐사위원은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원형분화구인데다 사면이 밋밋하게 펼쳐진 괘평이오름에서는 무덤을 하나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 /특별취재반

#### [전문가리포트]삼태봉(三台峰)에 서린 고운 자태

한라대맥을 타고 장엄하고 신령한 한라산의 품에 다가갈수록 싱그러운 초목의 내음과 청초한 야생화의 향기가 잊혀진 우리의 꿈과 그리움을 되살려 내고 있다.

반달 모양인 금형(金形)으로 다가오는 괘평이·셋괘평이·셋괘평이오름이 마치 다정한 세 자매가 어깨를 나란히 한 듯 사이좋게 이어져 삼태봉(三台峰)의 형상을 이루고 있다. 고운 여인의 자태로 유혹하듯 손짓하는 세 봉우리는 산정의 화구호에서도 둥그런 원형의 옥반형(玉盤形)을 이루어 지친 산객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한다.

괘뎡이 오름은 여느 오름과는 달리 능선이나 분화구 또는 외사면에 묘지군을 거의 볼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것은 오름의 외사면이 굴곡이나 기복이 없이 반듯하게 경사만 이루어져 있는데 풍수에서 중시하는 물의 흐름과 관계가 있다. 묘자리보다는 안산이나 조산격이다.

그리고 넓거리 오름의 북동쪽 아래쪽에서 골짜기를 발견할 수 있다. 계곡을 가로질러 살짝 올라가면 평평하고 봉긋한 부분이 나타난다. 그곳은 물줄기의 변화가 굽이굽이 감싸안고 기운의 경계를 이루는 사이에 있는 복판으로 양명한 곳인데 아니나 다를까 그 곳에 역시 묘 1기가 자리한다.

일반적으로 제주의 오름은 분화구 안쪽에 또는 오름의 사면에 묘지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묘지의 담장인 산담은 음택풍수에서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으로 볼 수 있다. 제주도의 묘지는 혈장을 보호하는 선익(蟬翼)이나 용호(龍虎)의 형성이 육지의 산형과는 달리 자연적으로 형성된 곳이 많지 않으므로 혈에 모인 기운이 팔요풍(八曜風) 즉, 바람에 노출되어 흩어지지 않도록 허한 곳을 보완하기 위한 비보(裨補)의 방법으로써 산담을 쌓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 산담의 크기와 높이로 집안의 지위를 은연중 나타내거나 목축으로 인한 우마(牛馬)의 침입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도 볼 수도 있으나 풍수학적 견해로 볼 때 제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지형과 지세에서 기인한 제주 선인들의 자연관과 지혜가 아닐까 생각한다.

<신영대 탐사위원(제주관광대 교수/ 풍수분야)>

#### [전문가리포트]동일기원의 쌍둥이오름

괘뎡이는 세 개의 봉우리가 북동-남서 방향으로 연속되어 있다. 동쪽의 해발 792.1m, 평균 저경 약 700m로 가장 높으면서 큰 산체를 보통 괘뎡이라 부르고 있다. 괘뎡이 서쪽에 연하여 분포하는 해발 표고가 낮은 두 봉우리는 그 높이와 산체 크기에 따라 두 번째 높은 봉우리를 셋괘뎡이, 가장 낮은 봉우리를 셋괘뎡이라 부른다.

괘뎡이 세 개의 봉우리에는 별개의 분화구가 각각 형성되어 있다. 괘뎡이 분화구는 직경 130~200m(장축은 북서-남동방향), 깊이 10~30m로 타원형이다. 셋괘뎡이 분화구는 직경 80~90m, 깊이 13~22m의 거의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며, 셋괘뎡이 분화구는 직경 약 70m, 깊이 3~7m(는 가장 757.0m를 나타내는 원형이다.

괘뎡이 세 개의 오름은 모두 송이로 구성된 분석구이며, 오름들을 구성하는 송이들은 모두 같은 암질로 구성되어 있고 큰 광물들을 관찰할 수 없는 감람석현무암의 암질을 나타내고 있다. 괘뎡이 북서쪽에 형성되어 있는 넓거리오름의 송이들은 눈으로 많은 광물이 관찰되므로 괘뎡이를 구성하는 송이와는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궤평이 세 개의 오름들은 서로 별개의 화산활동에 의한 오름이라기 보다는 이름 붙여진 것과 같이 거의 같은 시기에 동일 기원의 마그마에서 시작된 쌍둥이 오름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다만 일반적인 분석구에서는 중심 분화구가 하나로 나타나는 반면, 궤평이에서는 어떤 이유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세 개의 분화구에서 화산활동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정차연 탐사위원( 농업기반공사/ 지질분야 )>

[사진설명]궤평이 정상에서 바라본 오름군. 도내 가장 대표적인 화산구조선의 하나로 왼쪽부터 견월악 절물오름 봉개민오름 지그리오름 바농오름 새미오름까지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다./사진=강경민기자

특별취재팀/ 한승철부장(기획특집부)

강시영·이윤형차장( )

표성준(편집부)·강경민기자(사진부)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